

우유 집을 만들자

서울보건전문대학
安 孝 一

편집자로부터 원고의 요청을 받고 그동안 발행된 牛乳紙를 검토하여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우유가 영양식품이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품임을 강조하였으므로 시중에서 피부로 느꼈던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나는 거리를 지나는 길에 목이 마르면 대포집보다 시원한 우유를 마시러 식품점이나 슈퍼등 인근 가까운 곳에 가서 우유를 마시고 가는 습관이 몸에 젖어있다.

술을 먹으면 마신 즉시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 다 반사이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를 지날 때는 술보다 우유가 좋아 우유를 마시는데 그 마시는 장소가 문제가 된다.

혼자 걸을 때는 우유를 마시나 둘이 걸거나 손님이 올 때는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먼지나는 길가가 아니면 앉을 곳도 마땅치 않

기 때문에도 그러하며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이다.

물론 다방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마음놓고 심심한 우유를 마실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유를 물에 풀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려니와 우유의 영양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도 그 가격이 차값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를 시민들을 즐겨 마시고 있다.

거리를 지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대포집도 있고, 인삼찻집도 있는데 우유집은 없다는 것, 마시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입에 대면 넘어가는데 어느 것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는 마셔도 잠시 그때 그 기분일 뿐, 우리 몸을 흠뻑 적셔 주고, 갈증을 풀어주는 우유집은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대포집에서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우유는 술과 같이 우유가 우유를 마실 수는

없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고 실수하는 적도 없다.

우유는 적당량을 마시면 더마시고 싶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유의 소비를 늘리려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우유집을 만들자.

1960년대에 우유는 소비가 잘 되지 않아목장에서 1주일의 하루는 남유하지 못하고 자가소비한 일이라든가 1970년대 초 소비촉진을 하기 위하여 서울 운동장앞, 서울역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우유촉진 캠페인을 벌린 것을 거울삼아 항구적인 대책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우유집을 설치할 것을 제언(提言)하는 바 이다.

초창기 우유집의 시설은 좋은 시설이 이너도 좋다.

대포집의 목로처럼 간이 의자와 동동주집에서 農村의 풍경을 운치있게 담아 놓을 수 있는 주렁박 넝쿨을 걸어놓고 송아지를 보며 우유통, 구웅(사료통) 위에다 쟁반처럼 올려 놓고 우유를 마셔도 된다.

이 우유집에 가면 시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분유, 이유식, 연유등 각종 유제품이 전시되어 필요한 것을 살수 있게 해야겠다.

최근 거리 곳곳에 있는 오비 베어(OBBear)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맥주를 들수있으며 음식백화점이생겨 한 장소에서 식욕이 당기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듯이 시유 등 여러 유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방보다) 신선

하게 마실 수 있게끔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OB bear (오비베어)는 밤에 주로하는 장사이며 음식백화점은 점심·저녁장사이다.

우유집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힐 수 있고 영양을 마실 수 있으며 어린시절에 자라던 고향집에 들린 것처럼 운치있게 꾸며 놓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독일의 우유집〉

환한 창문의 햇살이 부족한 날에는 등잔불, 호롱불도 밝혀 놓고 서늘한 가을부터 이듬해 새싹이 돋기 전까지는 화로불도 준비하여 색깔을 조화시켜 운치있게 해 놓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유를 찾는 제충이 넓어질 것이다.

몇 해 전 섹스피어의 생가를 들렀을 때 그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침구와 책상 등 가구를 그대로 보존해 놓았는데 섹스피어 생가에서 본 것 중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은 1층과 2층방 모퉁이에서 방을 덥게 하기 위하여 직접 불을 때는 모습을 전기를 활용하여 장작같이 생긴 나무

등걸 속에 붉은 불을 켜놓음으로서 마치 불이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서양사람 들로부터 당신의 나라에선 2~5백년전 농촌의 2층에 난방을 어떻게 했었느냐고 가끔 질문을 받게 된다.

1층은 불을 때서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지만 실제 2층집이 옛날 우리나라 농촌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설령 있다고 가정 해보아도 불을 댈 모습을 설명하기란 어려웠다.

유럽의 다방은 많지않고 맥주집이 많은데 이러한 시민들의 대화장소에 그 옛날 섹스피어의 생가처럼 불을 때던 모습을 재현 시켜 놓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등잔불과 호롱불을 우유집에 연상시켜 놓으면 등잔불 아래서 공부하며 즐겁게 지내던 시절을 2세에게도 우유집에 가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2. 이동 우유집

앞의 우유집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화의 장소로 삼는다면 도시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서 우유도 마시고 여러 종류의 우유제품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동 우유집은 사진처럼 차바퀴도 달리고 세면의 창문을 열게하고 뒷면에다는 제품진열을 한다.

운치있게 꾸며서 시민들이 이동 우유집 앞을 지날 뻔 입안에서 군침이 돌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하자.

시민들을 맞이하는 판매원은 흰 가운데에 운치



〈독일의 이동식 우유집(창문을 닫고 자동차 위에 달고 다닌다)〉

있는 모자를 쓰고 상냥한 말로 친절하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자.

저기에도 아름답고 멋진 아가씨의 고운말씨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동 우유집은 사람들이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하자.

버스정류장, 기차역, 운동장, 극장앞, 산책로, 지하철, 비행장, 시장, 각 학교,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군부대 등에 설치하여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게 하자.

사람이 자라서 어린시절 엄마의 품을 그리워 하듯이 이제 이동 우유집을 설치해서 몇년이 지나면 거리를 지나다가 이동 우유집을 국민 모두가 꼭 들릴 수 있게 하자.

제대를 한지 20여년이 되었어도 이동, 주보를 잊지 못한다.

값도 비싸지 않고 유일하게 사먹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병영 생활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안식처란 생각에서 그랬는지...

그때 그 장소에서 우유가 있었다라면 몇 년간을 쉬지 않고 마셔서 내 건강도 더 좋아졌을

텐데 하고 아쉬워 해본다.

지금의 군부대 이동주보에 우유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는 가끔 고속버스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다.

갈 때마다 휴게소에서 싱싱한 우유를 사 먹는다.

우유와 요구르트 등 음료는 많으나 치즈, 분유, 연유 등의 제품은 진열되어 있지 않다.

아직은 잘 팔리지 않겠지만 먼 장래를 보고 진열해 놓았으면 한다.

일부러 시장에가지 않더라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우유를 사 마시면서 버터나 분유를 사고 싶어도 판매원의 대답은 몇번이고 한결 같았다.

이런 생각은 나만이 갖는 것일까(?) 사람들이 차시간이 될 때까지 또는 운동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아니면 약속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잠시 목을 추길 수 있게끔 이동 우유집이 설치되기를 바란다.

1964년 필자가 동경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여행자들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었다.

수많은 의자를 펼쳐놓고 우유를 마시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여행자들도 수도물에다 설탕과 향료를 풀은 음료대신에 젖소의 몸에서 수 많은 영양을 지니고 나온 우유를 더 많이 마실 수 있게끔 유도해야겠다.

3. 5분~20분짜리 영화녹화준비

초창기 우유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비자

를 위한 서비스를 해야겠다.

우유도 마시고 영화보는 재미도 지낼 수 있게 하여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생산과정과 우유를 알게 하여야겠다.

소비자들은 우유를 마시는 것 이외도 우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유소비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무급(無給)의 판매원이 될 수 있게 하자.

시중에서 권투시합이 있을 때 다방의 텔레비전 방향으로 의자를 해놓으면 미안해서도 자리값을 하고 나오는 것이 상례이다.

우유의집 영화는 운동경기처럼 치열한 승부 이전에 젖소를 사육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는 모습과 순박한 송아지의 음매소리, 풍만한 젖소의 몸을 보여주어 잠시 동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로운 꿈에 젖게 할 것이다.

찬송가속의 교독문 중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결은 마음과 영적을 그리게 하지만 우유집의 초원의 언덕은 푸른 풀과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마음과 몸을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우유집의 영화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결로 시작되게 하며 젖소가 먹는 싱싱한 목초와 영양분이 있는 사료를 먹는 모습에다 그 영양분이 젖소의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 혈액순환에 의해 우유의 영양이 유선에 담기는 모습을 보여주자.

또한 위생적으로 착유하여 우유를 살균하고 포장하며 깨끗하게 저장하고 소비자에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것은 최근 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하고서는 금송아지가 집에 있으면

무얼하나 하는 자문자답(自問自答)을 해 본 일이다.

종합대학의 캠퍼스 축제 때 축산식품코너(畜産食品 Corner)를 설치하여 Corner를 찾아온 350여명의 학생들에게 여러 종류의 앙케이트조사 중 우유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요약하여 Seminar 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 설문 중 우유는 영양식인가 하는 질문에 45%가 우유는 물을 탔다 하는 응답자가 나왔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우유는 영양이 완전한 식품이며 외국에 못지않게 근대화 시설로 위생적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발표하지만 이 앙케이트에서 나온 답이 이렇다는 것에 대하여 아연질색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잡지를 보는 독자들은 이미 우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고, 또는 독자의 수도 전체 국민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학생들을 공장견학 시키면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더 많이 우유에 대해서 알게 된다.

특히 서울 우유의 견학시는 우유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어 영화가 끝나면 무언 중에 우유가 좋으며 근대화된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내가 우유집에 20분내외의 짧은 우유 영화를 보여 주자는것은 이러한 소치에서다.

잡지도 계속 만들고 견학도 많이 개방해야겠지만(어느 회사의 경우는 견학사절?)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국민들에게 우유에 대하여 보다 더 알게 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자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우유영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의 개척기에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번역되었고 지금도 활자화 되어가고 있다.

처칠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잘 말했지만 그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한 그 자체도 잘되었다는 대화를 주고 받은적이 있다.

내가 영국을 떠나기 전 처칠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윈스턴 처칠 생가 광장에서 줄지어 기다리다 구비구비 줄을 따라 현관안에 들어간 것은 두 시간만에 였다.

발들일 틈도없이 뒷꿈치를 든 총총 걸음으로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자라던 모습과 그가 成人이 되었을 때 즐겨 마시던 우유잔을 보며 그의 명언을 다시 음미해 보았다.

그 영어는 해석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를 거다.

대학시절 강의시간에 들던 이재영 교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한 나라가 그 장래를 위하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여 두는 일이다.」 보았다.

몇시간 만에 집안을 나와 생가의 동북방향에 자리잡은 수만평의 호수가를 거닐어 보았다.

산책하는 관광객들도 처칠의 365개 담배대를 전시한 방이 인상깊었으며 하루에 담배대 하나씩을 사용하면 그 부인이 니코틴을 닦아 둔 후에 365일 만에 다시 그 담배대를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영국 의사당 앞의 우뚝한 윈스턴 처칠경 동상을 목격했을 때 나는 그가 많은 우유를 마시면서부터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마시었으므로 저렇게 호랑이 같이 육중한 몸을 지탱했으리라고 본다.

4. 맺는말

전체 낙농가족이 20여년간 모두 다 힘써 노력 하지만 캠퍼스의 앙케이트 조사처럼 우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대학생이라면 우유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생활을 통해서 우유를 접해 본 기회가 더 있었을 터인데도 그러하니, 조사하지 않은 Campsu 밖의 국민들의 인식을 추측 할 수가 있다.

국민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 같은 값의 음료라면 달콤하지 않지만 우유를 사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다.

그 방안이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본다.

물론 해방전 계란이 값도 비싸고 귀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살면 우유도 계란같이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나, 잘 살아도 국민들이 먹어주어야 한다.

또한 인식부족으로 요구르트를 쉬었다고 버리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1981년 8월 어느 무더운 날, 신세계 앞을 지나다 시원한 우유를 마시려고 지하수퍼 우유코너를 들렀다.

평소 국내에서 보지 못하던 서구식 요구르트가 나왔다.

반가운 김에 300원을 주고 나무스폰으로 맛있게 먹고 있으니 지나던 부부가 멈추더니, 디자인이 잘된 삼양요거트(내가 먹고 있던 것과 같은 것)를 사더니 5살 정도된 아들에게 주려다

말고 그 아버지가 먼저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조금 먹어 보더니 쉬었다고 탁 내버린다.

판매원에게 왜 쉰 것을 파느냐고 말하자 판매하는 아가씨는 이 아저씨는 맛있게 잡수는데요? 하며 나를 가르킨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하려드니 잠시 듣다가 아들을 데리고 에레베이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맛좋은 우유를 쉬었다고 투덜대던 30대 남자, 이름도 요거트라 그런지 요거 쉰 것을 왜 팔어하는 그 음성이 지금도 내 귓전에 들리는 것만 같다.

한국에 처음 상륙한 요구르트는 액상 요구르트이고, 서양에서 잘 소비되는 호상 요구르트(스폰으로 떠마시는 것)는 처음 시중에 나와서 그런지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발효유제품 등 각종 우유제품에 대하여 이 소비자들에게 녹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유가공 회사들의 책임이라 하겠다.

국민들에게 우유를 인식시키는 방법은 우유의 집을 만들고 우유의 집에다 5~20분 내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독일의 기차역 대합실 코너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DM 동전을 집어 넣으면 3분동안 이상하고 재미있는 필름이 천연색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기차역에는 그런 식의 필름이 아니고 낙농의 초창기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유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의의있다고 본다.